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19년 12월 제238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앙첸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82-5658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동문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00년 향해 나아갑시다!"

[박대용 총동문회장 송년사] "기해년 행사 성과 선후배님께 감사"

기해년 한 해 충기 동문과 가족들의 협조로 각종 행사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사진은 제31회 총동문체육대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경자년 새해가 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 옷깃을 여미며 새 출발의 기원을 다짐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해를 보내면서 미완성의 아쉬움을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사 같습니다.

우리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단합된 힘으로 잘 나가는 동문회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동문 소모임은 물론 지역, 직장, 동호회 모임이 가장 많기도 하고, 동문회보 설송소식은 전국 동문회 중에서 유일하게 월간으로 어느새 238호를 발행하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동문들의 관심과 협력의 결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올해 3월에 열린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놓은 전통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 회장직을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동문 선후배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올해 1월 13일 계룡산 자락 빈계산 수통골에서 충기 동문가족들의 한 해 건강과 행운을 비는 시산제를 필두로, 2월 22일 제81차 총동문회 이사회에 이어 3월 22일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동문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경북 문경새재에서 제9회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가 열렸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6월 5일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오영안 장군, 임재엽 상사 추모식을 동문들과 함께 봉행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6월부터 키움증권배SBS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에 충기동문골프팀이 출전하여 예선을 통과하고 16강과 8강에 진출하여 9월까지 경기를 펼쳐 전국의 동문들이 경북 상주까지 응원을 가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충기동문들의 한해 최대 행사인 제31회 총동문체육대회가 전국의 동문들이 동참한 가운데 모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1월 16일에는 24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가 유성에서 열린데 이어, 12월 7일에는 14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12월 13일에는 4회 모교 졸업50주년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려 충기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생전에 말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처럼 동문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문회가 잘 운영되는 것은 시간을 내어 희생하는 동문들과 각 회수 동문회, 지역과 직장 동문회 등의 협조 덕분입니다.

총동문회 회장을 수행하면서 말없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문들이 있기에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총동문회 행사에 적극 협조하는 각 동문회와 동문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충기총동문회가 선배들의 찬란한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충기총동문회를 위해 더욱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전진해야 합니다. 경자년 새해, 충기인 여러분의 건강과 온 가정에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총동문회장 박 대 용 올림

충기산악회 경자년 새해맞이 시산제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충기산악회는 건강한 기운을 받기 위해 대전 보문산에서 시산제를 지내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20년 1월 12일(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대전 중구 보문산 문화동 제1노외공영주차장(문화광장)
* 일 정: 10시 시산제 후 시루봉 등반, 12시 하산 및 점심식사, 14시 종료
* 집결지 : 대전 중구 문화동 44-2번지 제1노외공영주차장(문화광장)
* 연락처 : 김정규 총무(35회. 010-9240-3557)

충기총동문회산악회 진 춘 식 회장

“모교 후배 10명 장학금 수여…전기처럼 환하게 살자”

제47회 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장구가락 흥겨워

제47회 전기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선배들의 정성으로 해마다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전기과동문회(회장 이정식)는 12월 13일 저녁 7시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동문과 가족, 모교 후배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전기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전기과동문회장(8회)은 개회사를 통해 “올 1년 동안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집행부와 선후배들의 성원으로 한 해를 마칠 수 있었다”며 “경자년 새해에는 동문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어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격려사에서 “전기과동문회는 우리 총동문회의 역사이며 자랑으로 선배들의 노력으로 총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전기과동문회의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매년 지급하는 모교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날 장학금은 모교 전기과 후배 10명에게 장학금(50만원씩)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은 김홍준 동문이 희사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활동사항과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임원선출에서는 총회에서는 임기 2년을 보낸 이정식 회장의 후임이 없어 1년 더 연임하기로 결의했고, 감사에는 정성태(13회) 동문과 마수용(18회) 동문이 선출됐다.

기타 토의에서는 전기과 동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전기과 총회에는 이종욱(3회) 이우정(3회) 이동모(4회) 이윤학(6회) 윤여봉(6회) 선배를 비롯하여 7, 8, 9회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이날 저녁 4회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뒤늦게 이정근, 권수복, 박구범 4회 선배 3명이 동참하여 분위기를 돋구웠다.

개회식과 시상, 정기총회를 마치고 만찬시간에 초청공연으로 이철희 동문(8회)이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아랑고고장구단 회원 20명이 흥겨운 가락으로 멋지게 마무리했다.

– 신도성, 김희곤 편집위원 –

13회동문회 송년의 밤 “유성에서 부부동반 멋지게 보냈다”

가수 현자 등 출연 13회전속밴드 맞춰 노래자랑 또 하나의 추억

13회동문회가 부부동반으로 유성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멋진 송년행사를 보냈다.

친구야 한 잔 받게, 우정을 돈독히 하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13회 분위기 짱!

13회동문회(회장 김광시)는 12월 6일 저녁 6시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송년 디너쇼를 겸한 송년의 밤 행사를 부부동반으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이날 행사는 기해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을 서로 위로하고 경자년 새해를 더욱 멋지게 보내자는 기원을 담아 우정을 나눴다.

13회동문회는 김광시 회장이 맡고 나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등을 멋지게 치르고 총동문회 행사를 비롯해 선후배 모임에 적극 참석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어 동문들의 신망이 높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김광시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한다”며 “그동안 적극 협조해준 백두현 13회후원회장을 비롯한 친구들과 문행모 운영총무, 송승용 재정총무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시 회장은 이어 “고교 친구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벗”이라며 “오늘 그리운 친구들과 부부 동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13회 송년의 밤 행사에는 현자와 장현성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여 동기 친구들로 구성된 13회전속밴드(단장: 최영길 단원, 단원: 주위종, 박성길)의 신나는 연주에 맞추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3회 동문들은 이어 장기자랑으로 멋지게 노래를 불러 스트레스를 확 풀었다.

전국에서 모인 동문들은 불타는 금요일에 행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기해년 한 해를 차분하게 보내고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13회동문회는 내년 1월 13일에 열릴 정기총회에서 신임 집행부를 내정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13회동문회 신임 회장은 김산영 동문이, 운영총무는 황규성 동문이, 재정총무는 노영삼 동문이 맡을 예정이다. 13회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신도성, 황규성 편집위원 –

“고희 나이에 이제 미움도 비우고 허허하며 너그럽게 살자”

4회 모교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70여 명 동참 태화장에서 열려

동문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전국에서 온 4회 동문들이 기념촬영으로 흔적을 남겼다.

장희석 4회 졸업50주년 추진위원장이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4회동문회는 모교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12월 13일 저녁 대전 동구 정동 태화장에서 동문과 선후배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희석(광산과) 우옥순(방직과) 강동식(자동차과) 한봉석(전기과) 공동추진위원장과 서울, 울산, 홍성 등 전국에서 온 동기들이 반갑게 해후하면서 시작되었다.

4회의 졸업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박대용 총동문회장과 오응수, 심상정, 송주영 (1회), 이우정(3회) 총동문회 고문과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김용조(7회) 동문, 유일녕(9회) 자문위원과 정찬목(12회) 자문위원,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16회), 최동준 재무국장(21회), 이진혁 사무국장(30회), 김정규 홍보국장(35회)이 참석했다.

장희석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졸업5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교우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내빈소개와 각 과별로 상견례를 하며 오랜만에 만난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장희석 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월무상이라더니 모교를 졸업한지 어언 50년이 지났다. 뜨거운 피를 주체할 수 없었던 10대, 3년이란 세월을 같이 보낸 우리는 남다른 인연의 끈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는 뭐가 그리 급한지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여럿 있는데, 50년 세월을 무탈하게 보내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이며 신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고 회고했다.

장 추진위원장은 또한 “고희를 맞은 우리는 이제 미움도 증오도 한자의 비울 허(虛)자를 생각하며 허허하며 덮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며 “모처럼 만든 뜻 깊은 50주년 행사 자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고 돈독한 우정을 쌓는 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졸업50주년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4회 졸업50주년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공자님은 나이 70세가 되면 종심(從心)이라고 했는데. 70세가 되면 마음 가는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은 물론 몸의 건강도 잘 챙겨서 동문회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시어 후배들을 격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교가제창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중국요리로 만찬을 들며 장희석 추진위원장과 박대용 총동문회장의 건배사, 각 과별로 건배를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4회 졸업50주년 추진위원회는 모교 총동문회에 122만1,44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광산과

방직과

자동차과

전력과(전기과)

전력과 건배

자동차과 건배

박대용 총동문회장 축사

동문 선후배 참석

이모저모

“그동안 자주 못 와 미안…총동문회에 발전기금 ”

○…김선억 동문(4회)은 이날 “그동안 총동문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울산에 사는 최하명 동문(4회 전기과)은 새벽에 집을 나와 버스와 열차를 갈아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최 동문은 행사 후 대전의 친동생 집에서 일박하고 귀가했다.

“한번 왔다가는 인생 해보지 못한 것 하면서 즐겁게 살자”

14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은사님 등 150여 명 참석 화기애애

14회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모교 졸업 40주년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4회 동문들이 건강하게 살아 50주년 행사에도 반갑게 만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14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가 12월 7일 오후 6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스승님들과 내빈, 선후배 동문과 14회 동문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서석우 동문의 사회로 열린 이날 14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는 백채준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박준서 동문과 박찬호 동문이 14회동문회기와 올해 처음으로 총동문회에서 제작한 모교졸업 40주년기념기를 들고 입장했다. 이어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동문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강신열 14회동문회장은 은사님과 내빈 및 동문을 소개했다. 이날 제자들의 안내로 조수현, 김영일, 안원수, 이상덕, 강차중, 정락중, 표상영, 박상규, 전병배, 신규호, 조우일, 이재범 은사님이 참석하였고, 황의만 모교 교장과 박대용 총동문회장, 송주영 총동문회고문과 김광시 13회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채준 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까까머리 교련복에 때 묻은 실습복이 마냥 어색하기만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모교를 졸업한지 40년 세월이 흘렀고,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며 맡은 바 역할에 전념하다보니 반백의 나이가 되어 인생을 되돌아 보는 전환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서 힘을 합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은사님은 축사에서 “30주년 행사가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흘러 건강하게 만나 기쁘다”며 “여러분은 이제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황의만 모교 교장은 축사에서 “지난번 열린 총동문체육대회 행사 때 멋지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14회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큰 힘이 되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60세 이순의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듣거나 글을 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존경받는 나이’”라며 “우리 총동문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4회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신열 14회동문회장은 격려사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분들과 추진위원장 이하 집행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며 “14회 동기들이 지난 7년 간 정성껏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접수

기념사진

40주년기 입장

은사님께 선물

감사패 수여

잉꼬부부 시상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전달

졸업40주년 기념기 15회 동문에게 전달

백채준 추진위원장의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제자들이 열 두분의 은사님을 연단에 모시고 보은의 선물을 증정했다.

백채준 추진위원장은 4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가진 2019년 정기총회를 즈음하여 14회동문회에 애정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김주국, 김석호, 김경영, 남상복, 박노전, 오승준, 전병주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강신열 14회동문회장은 올 한해 친구들 행사에 동참하여 화기애애하게 지낸 박찬호 김희숙 부부, 이종업 신우송 부부, 서석우 양영선 부부에게 잉꼬부부상을 수여했다.

졸업40주년 기념기를 15회 동문에게 전달하고 교가 제창 후 축하케이크 절단과 건배에 이어 백채준 추진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14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쳤다.

14회 동문들과 가족들은 공식행사에 이어 송년회를 겸해 가수들의 노래와 노래자랑으로 여흥을 즐겼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동문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경기북부동문회 송년의 밤, 정기총회 신임 회장 김용진 동문 선출

국토의 최북단 휴전선 인근에 사는 경기북부동문회의 우정은 매우 끈끈하다.

김용진 신임 회장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계속 활기찬 모임을 약속했다

경기북부동문회(회장 정인창)는 12월 14일 저녁 파주 금촌 덕성원에서 송년 행사와 정기총회를 갖고 2020년을 새로 이끌어갈 신임회장을 뽑았다.

신임 회장으로는 김용진(11회)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고, 의정부 지역을 이끌 동부지회 회장은 유재환(11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정인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 동문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다”며 “기해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동문의 소중함을 느끼고 의미 있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경자년 새해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경기북부동문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정인창 회장(13회)과 김민철 수석부회장(14회), 최기춘 부회장(15회), 최용선 부회장(15회), 임동현 총무(21회) 등 임원진이 합심하여 모임의 활성화는 물론 충기산악회와 전방견학 행사 등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용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계속 활기차고 희망적인 경기북부동문회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자년 새해에도 동문들의 하시는 일이 순조롭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북부동문회 행사에는 회원들의 회비 외에도 의정부동문들과 송영호 고문, 김현수, 강희창, 최재흥, 조우석 동문이 협찬해주어 행사를 잘 치렀다.

행사 후에 2년 간 총무를 맡아 동분서주한 임동현 동문이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한 편의 글을 보내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문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조금씩의 부족함을 서로 감싸주고 메워주고, 정말 멀리 고향을 떠나 경기북부에서 살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가장 빛나는 동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북부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끈끈한 우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신도성 편집위원, 임동현 총무 –

“동문끼리 준비한 작은 선물 나누며 한 해 추억 마셨다”

인천동문회 송년회, “경기침체 잘 극복, 경자년 새해 활기차게 맞자”

인천동문들이 동문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동문회 선배들이 동문들의 행운을 바라며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인천동문회(회장 김창국. 18회)는 12월 13일(금요일) 저녁 7시 부천역 근처 채림웨딩뷔페에서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임헌호(3회) 윤대익(4회) 유중조(7회) 이종현(7회) 김명식(7회) 선배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기해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경자년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동문의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창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성하시고 가정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선후배 동문들은 송년회에서 삼삼오오 자리에 앉아 올 한해의 추억을 되새기고 내년 계획도 구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맛있는 음식과 여러 차례의 건배에 이어 인천 동문들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천동문들은 이날 송년회에서 “인천동문회는 충기동문회의 지역 모임 중 가장 잘 나가는 동문회의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경자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 김영수 인천동문회 총무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82-5658

‘취업빙하기’ 무색하게 공무원, 공기업 잇따라 입사

이광섭 졸업생(54회), 황수영, 나정한, 한동석 3학년 최종 합격

이 광 섭

황 수 영

나 정 한

한 동 석

최근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모교 학생들이 공무원, 공사에 당당히 최종 합격되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모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반, 공기업 및 대기업반, 중소기업반 등에 알맞는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직무 및 인·적성검사 대비를 위한 특별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집 분야에 맞도록 지원서 작성과 면접 연습에 힘써 왔다.

그 결과 국가직 9급 공무원에 이광섭(전자기계과 2019년 졸업. 54회), 대전시청 9급 공무원에 황수영(CNC선반과 3학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나정한(전기과 3학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한동석(전자기계과 3학년)이 최종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공사에 합격한 한동석 학생은 “1학년때부터 진로설계를 통해 공기업 입사를 위해 자격증 취득, 자소서, 내신을 관리했고, 3학년에 올라와서는 NCS기반 직무능력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보며 꾸준히 공부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유병춘 편집위원 (11회. 모교 교사) –

“직업 가지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

2학년 대상 직업기초능력시험 실시

모교에서는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했다.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그 동안 일반고와 특성화고 구분 없이 시행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고, 직업교육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들이 전원 응시하는 시험이다.

평가 영역은 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능력(수학), 문제해결능력(전공)으로 실시되었다.

(국어)의사소통은 작업장면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상황, 의사소통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음성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영어)의사소통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전달되는 간단한 문자정보나 음성정보를 활용하여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수리활용능력(수학)은 직업 장면에서 계산, 수학적 원리 및 수리적 사고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 문제해결능력(전공)은 자신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직업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초 및 개념 지식을 활용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나에 대해 알고 나의 미래를 꿈꾼다”

‘꿈 & 행복 Up!’ 진로캠프 운영

모교에서는 12월 23일(월) 2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약 6시간 동안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의식 함양하여 발견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협동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함양 위한 ‘꿈 & 행복 Up!’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나의 관심사 찾기, 나의 정체성 찾기, 나의 욕망(꿈) 찾기를 글로 표현하거나 간단한 문구류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어색함과 경계심을 표현하면서 소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활동을 통해 긴장이 풀리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또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누며 상호 간에 힘을 주고받으면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12월 19일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로드맵 설계 특강이 있었고, 12월 24일에는 대기업 및 강소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학년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에 학생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학년 심재현 학생은 “나의 관심사와 나의 정체성 알고, 꿈을 찾는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고 남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조금 더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입 현황

기간 : 2019년 11월 27일~12월 23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김재찬	50,000	자	9	권오정	20,000	기	15	배진구	20,00	기	25	강신철	20,000
상	2	도인선	100,000	자	9	오경세	20,000	전	16	공영권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자	3	김재천	20,000	기	9	박종복	20,000	전	16	이상돈	100,000	단체			
전	3	이우정	20,000	방	10	김영갑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14회졸업40주년기념발전기금			
전	3	홍명표	20,000	전	12	김종하	100,000	기	16	이재흥	20,000				3,000,000
전	4	김선억	500,000	화	13	유병돈	100,000	전	16	장보환	20,000				
방	4	송석범	50,000	기	13	이형남	20,000	기	19	김범진	20,000				
전	4	이준기	5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19	박문수	20,000				
광	5	윤석용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9	신동진	20,000	단체			
화	8	이종웅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3	이남국	20,000				4회동문회 1,221,440
기	8	주숙종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4	이상희	20,000				

장학금

회보 광고비

광	10	윤여갑	200,000
기	13	나익성	600,000
기	14	이용선	50,000
기	15	조현기	800,000
기	16	김석래	5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700,000
업체		크라운뷔페	70.000

동문 가족들 덕담 나누며 한해 회고

천안동문회 송년회, 서정훈 회장 유임

천안동문회(회장 서정훈) 송년회가 12월 19일 저녁 50여 명의 가족 및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2회 김인경 동문이 운영하는 양평해장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서정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동문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어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1회 정종대 선배님을 비롯해 선배들의 덕담이 계속됐다. 이날 송년회에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천안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정훈 회장(16회)과 이영규 총무(23회)가 내년 한 해 더 수고해주기로 하여 박수를 받았다. 동문들과 가족들은 즐거운 식사와 술을 나누며 우의를 나누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김인경 동문과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한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 윤수원 천안동문회 홍보(28회) –

"나이 들면 고집 내려놓고 밥을 사자"

방직과 9회 청심회 부부동반 송년모임

충기동문회는 회수별 반별 소모임이 아주 많다. 대부분의 소모임이 자기들만의 모임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다. 하지만 소모임 중에는 동문회보에 소식을 알려오고 총동문회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임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방직과 9회 청심회(회장 김순규)가 그렇다.

청심회는 12월 14일(토요일) 저녁 대전시내 소재 베스타부페에서 전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참가하여 화기애애하게 진행했다.

김순규 회장은 이날 송년 건배사에서 "나이가 들면 고집은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 밥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되자"고 덕담했다.

청심회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려 친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

황인범 동문 동아시안컵축구 최우수선수상 기염

일본과의 경기 결승골, 그동안 부진 씻고 도약

충기 출신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50회) 동문이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안컵축구대회 남자부 3차전 일본과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일본을 1-0으로 제압하고 개최국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대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전반 27분 호쾌한 중거리 슈팅으로 일본의 골망을 갈랐고, 이후 한국팀은 황인범의 결승골을 잘 지켜 3전승으로 우승했다. 황인범은 지난 홍콩전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한데 이어 숙적 일본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평소에도 과묵하고 인간성이 좋다고 소문난 황인범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내 몫이다. 날 평가하는 건 팬들의 몫이다."며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일부 팬들이 그동안 황인범의 경기력을 비난했지만 벤투 감독은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계속 신뢰했고 황인범은 이날 경기력으로 벤투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황인범 선수는 산책 세레머니에 대해 "득점을 기록하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골이 들어가는 순간 산책 세레머니가 생각났다. 앞서 선배들도 하셨다. 일본 원정팬들에게 뛰어갔는데 한국 팬들이 더 많아서 당황했다. 어색한 세레머니가 됐지만 한국 팬들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났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황인범 선수는 1996년 9월 20일(만 23세)생으로 178cm의 키에 70kg 몸무게로 현재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FC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용프로 골프
한국골프클럽피팅협회 Korea Golf Club Fitting Association
대표 임 태 수 (6회)
지정 피팅골프샵 010-5401-34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8-18
Tel. 042-823-9044 Fax. 823-9055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현(12회)

CHUNGHO 청호나이스 www.chungho.co.kr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청호나이스 25년 기술력의 결정체 휘카페 – IV 엣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18년 연속 수상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우케미컬 및 칼곤사의 필터 재료사용
대전유성지사 박 선 규 (25회)
010-3882-5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 5층(지족동)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82-5658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16회 동문회 신년 정기모임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둔산정(대전시 둔산서로 84. 지하 1층 042-485-0888)
근로자 복지회관
◈ 찬조금 통장 : 농협 윤석길(351-1071-3944-93)

동문회와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했으니
친구 여러분의 많은 찬조 부탁드립니다.